

동시베리아 자바이칼 동부 신석기

알킨 세르게이*

〈목 차〉

- I. 머리말
- II. 분묘군과 주거지
- III. 생업, 문화유적
- IV. 맺음말

국문요약

본고는 최근 백 년간 이루어진 러시아 시베리아 자바이칼 동부지역 신석기 시대 고고문화 연구의 결과를 다루고 있으며, 주거지, 단독 매장유구 및 고분군, 암각화를 포함한 해당 시기 고고유적의 다양한 형태의 특징을 제시한다. 자바이칼 동부에 속하는 아무르강 유역에서 발견되는 매장유구군의 존재는 신석기시대에는 드문 사례로, 이는 연구대상 지역의 특수성이라고 할 수 있다. 해당지역 신석기 주민의 생업문화형태는 지리·기후 조건에 따라 결정되었다. 타이가 지대에서는 사슴, 엘크, 노루를 수렵하였고, 스텝지대에서도 수렵활동을 하였으나, 쿨란, 말, 몽골 가젤, 큰코영양을 사냥하였다. 수렵은 복합식 구조를 가진 활을 사용하여 행해졌다. 강가나 호숫가에서는 어로활동을 하였다.

자바이칼 동부에서의 토기의 유형으로는 침저형과 원저형이 있으며, 토기 발생은 기원전 7000년 이전을 거슬러 올라가지 못한다. 본고에서는 현재 러시아 고고학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자바이칼 동부지역 신석기시대 문화·편년안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짓고 있다. 이는 영역별로 고르게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과 관련된다. 그러나 각 지역성을 일부 밝힐 수 있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주제어 : 신석기, 고고문화, 물질, 정신문화, 주거지, 매장유구, 자바이칼 지역, 시베리아 동부, 러시아

* Novosibirsk State University 부교수

** 이지은 번역(동아대학교 강사)

I. 머리말

자바이칼 동부 신석기에 대한 연구는 긴 역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그림은 모자이크처럼 드문드문 남겨져 있고, 문화편년도 제대로 정립되지는 못하였다. 이에 관해서는 얼마 전 콘스탄티노프 M.V.가 신석기시대 문화를 헨테이스카야(Khenteiskaya), 오논스카야(Ononskaya), 인고딘스카야(Ingodinskaya) 문화로 세 개로 분류한 것에도 부분적으로 지적된다. 오논스카야와 인고딘스카야 문화는 자바이칼 동부의 상황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¹⁾

해당 지역 고고유적 연구는 17세기에 시작되었다. 이에 관한 첫 기록은 18세기 여행자 및 아카데미 조사 참여자의 일지에 남아있다.²⁾ 석기시대 유적 연구는 자바이칼에 첫 번째 향토사박물관을 설립한 A.K. 쿠즈네초프와 연관되는 19세기 말로 볼 수 있다.³⁾ 그의 수집품, 그리고 자바이칼에서 우연히 수습된 유물은 자바이칼 신석기문화의 특성을 정리하려고 시도했던 G.F. 데베츠의 기초자료로 활용되었다.⁴⁾ 그는 자바이칼 신석기문화를 초기 셀레긴스카야(Seleginskaya)문화와 후기 다우르스카야(Daurskaya)문화로 나누었다. 그는 후자의 특징으로 기벽이 얇은 원저토기와 흙이 있는 석제 날, 드로우나이프(drawknife), 등이 완만한 곡선을 이루는 석편과 같은 석기를 들었다.⁵⁾

1950년도부터 오클라드니코프 A.P.를 단장으로 하는 고고조사가 실시되기 시작했다. 조사단원들은 이고다강(Igoda river), 오논강(Onon river), 쉴카강(Shilka river) 계곡에서 탐사하였다.⁶⁾ 신석기 유적 및 자료로 판명된 것들이 발

1) Константинов М.В., Константинов А.В., 『Историческое наследие, 『Малая энциклопедия Забай кляя. Археология』, Новосибирск : Наука, 2011, с.16~21. (콘스탄티노프 M.V., 콘스탄티노프 A.V., 『역사유산』, 『자바이칼 소백과사전. 고고학』, 노보시비르스크 : 나우카, 2011, 16~21쪽.)

2) Окладников А.П., Кириллов И.И., 『Юго - Восточное Забай калье в эпоху камня и ранней бронзы』, Новосибирск, 1980, с.3. (오클라드니코프 A.P., 키릴로프 I.I., 『석기시대, 청동기시대 초기 자바이칼 동남부』, 노보시비르스크, 1980, 3쪽.)

3) Кузнецов А. К., 『Приложение к атласу археологических предметов』, 3 · 12. (쿠즈네초프 A.K., 『고고지도 부록』, 3 · 12쪽.)

4) Дебеч Г.Ф., 『Опыт выделение культурных компонентов в неолите Прибай калья』, 『Изв. ассоциации науч. исслед. Институтов при физ.-мат. факультете 1-го МГУ』 1 · 2, Москва, 1930, с.16 (데베츠 G.F., 『프리바이칼 신석기시대 문화요소 분류 시도』, 『모스크바국립대 자연과학대 연구회 소식지』1 · 2, 모스크바, 1930, 16쪽.)

5) Дебеч Г.Ф., 앞의 논문, 163쪽.

6) Рижский М.И., 『Из глубины веков. Рассказы археолога о древнем Забай калье』,

견되었다. 특히 새로운 유적지 그룹에서 쉘킨스카야(Shilkaya)동굴 자료에 특별한 관심이 기울여진다. 오클라드니코프 A.P.는 자바이칼 신석기문화와 프리바이칼, 야쿠티야, 몽골의 신석기문화 간의 긴밀한 관계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⁷⁾ 자바이칼 지역은 프리바이칼 지역 중부 문화양상이 변형되고, 부분적으로 받아들여져서, 그에 맞게 반복되는 것이라는 생각이 오랫동안 지배적이었다. 라리체프 V.Ye.는 중국 동북지역 문화와의 관련 가능성을 보여주었다.⁸⁾ 신석기 시대의 것을 포함한 약 70기의 주거지 및 분묘를 조사한 Yu.S. 그리션은 자바이칼 동부 신석기 연구 데이터베이스 형성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⁹⁾ A.P. 오클라드니코프의 전반적인 지도하에 이루어졌던 작업은 1960년대 중반부터 노보시비리스크 조사단과 치타 사범대 고고학조사단(조사단장 : I.I. 키릴로프)의 공동 조사가 제안되었다. 주요 강 유역(아르군강, 오논강, 치코이강, 히록강, 쉘카강)이 조사되었고, 이로써 후기구석기시대부터 중세 후기까지의 고고자료의 자세한 특징이 밝혀지게 되었고,¹⁰⁾ 부분적으로 자바이칼 동부 신석기시대는 친단스키(Chindanski)단계와 부두란스키(Budulanski)단계, 아모골론스키(Amogolonski)단계의 세 단계로 나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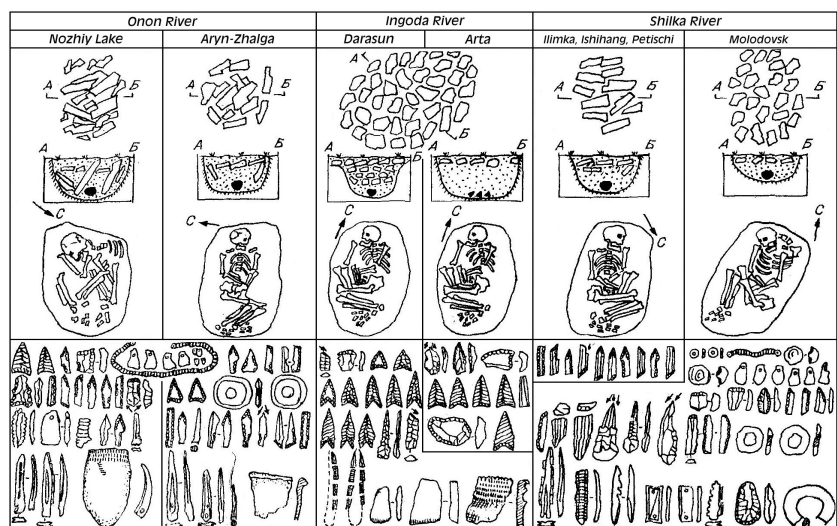
Чита : Восточно-Сибирское книжное издательство, 1965. (리즈스키 M.I., 『먼 과거로부터. 자바이칼 고대에 관한 고고학자의 이야기』, 치타 : 시베리아 동부 출판사, 1965.) ; Ларичев В.Е., Рижский М.И., 『Озёрный неолит и ранняя бронза Восточного Забайкалья』, 『Сибирский археологический сборник』, Новосибирск, 1966. (라리체프 V.Ye., 리즈스키 M.I., 『자바이칼 동부 호수 연안 신석기와 청동기 초기』, 『시베리아 고고자료집』, 노보시비르스크, 1966.)

7) 김원룡, 『시베리아 쉘카동굴의 신석기 문화』, 『한국고고학연구』, 1992, 138~151쪽.)
 8) Ларичев В. Е., 『Неолитические памятники бассейна на Верхнего Амура』, 『Труды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й археологической экспедиции』1, МИА, №86. - М.- Л. 1960. (라리체프 V.Ye., 『아무르강 상류 신석기시대 유적』, 『극동고고학조사단 자료집』1, 고고연구자료집 86, 모스크바 : 레닌그라드, 1960.)
 9) Гришин Ю.С., 『Бронзовый и ранний железный века Восточного Забайкалья』, Москва, 1975. (그리션 Yu.S., 『자바이칼 동부 청동기, 초기철기시대』, 모스크바, 1975.) ; Гришин Ю.С., 『Памятники неолита, бронзового и раннего железного веков лесостепного Забайкалья』, Москва, 1981. (그리션 Yu.S., 『자바이칼 산림스텝지구 신석기, 청동기, 초기철기 유적』, 모스크바, 1981.)
 10) Кириллов И.И., 『Восточное Забайкалье в древности и средневековье』, Иркутск, 1979. (키릴로프 I.I., 『고대, 중세 자바이칼 동부』, 이르쿠츠크, 1979.) ; Окладников А.П. Кириллов И.И., 앞의 논문, 1980, 176쪽.)

II. 분묘군과 주거지

신석기시대 유적 중 주거지, 독립 분묘와 분묘군, 암각화가 연구되었다.

자바이칼 동부에서 신석기시대 분묘의 존재는 그것이 존재하지 않는 프리아무르 서부와 같은 보다 동쪽지역의 고고학적 상황과 대조된다(도 1). 그래서 프리아무르강 상류와 중류 신석기인들의 장송의례와 정신세계의 복원과 관련된 문제를 살펴봄에 있어서는 신석기~청동기시대 초기로 편년되는 유일한 자료가 나타난 쉘킨스카야동굴 자료가 이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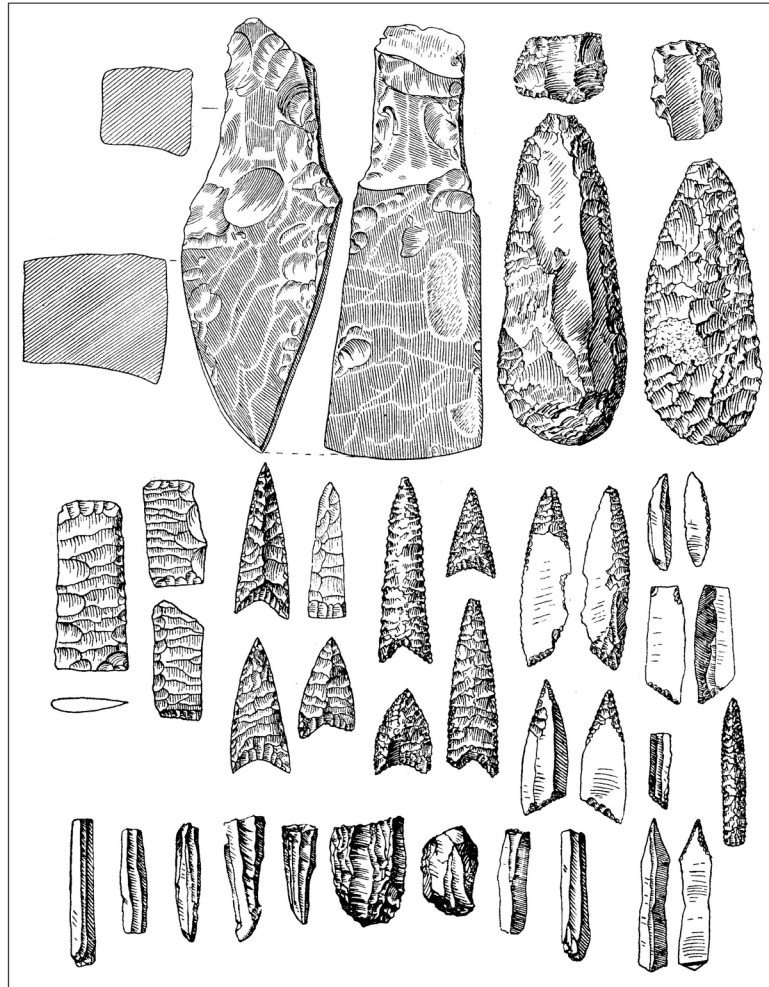


도 1. 자바이칼 동부 신석기 매장유형과 부장품 정리표¹¹⁾

동동굴은 쉘카강변 쉘킨스키 자보드(Shilkinski Zabod)마을 변두리에 위치한다. 이곳은 항상 밝고 건조했기 때문에 고대인들이 여기로 왔을 것으로 보인다. 입구에서 강 골짜기의 멋진 풍경이 펼쳐진다. 그래서 사람들은 처음에는 은닉처로써, 나중에는 매장지로 동굴에 관심을 가졌다. 발견품의 대부분은 수렵도구로 양날석창과 석촉, 삽입용골제소도, 단면·양면 톱니날작살촉, 검이 해당된다. 가장 수량이 많고 다양한 것은 화살촉으로, 40여점이 발견되었다. 어로도구류도 수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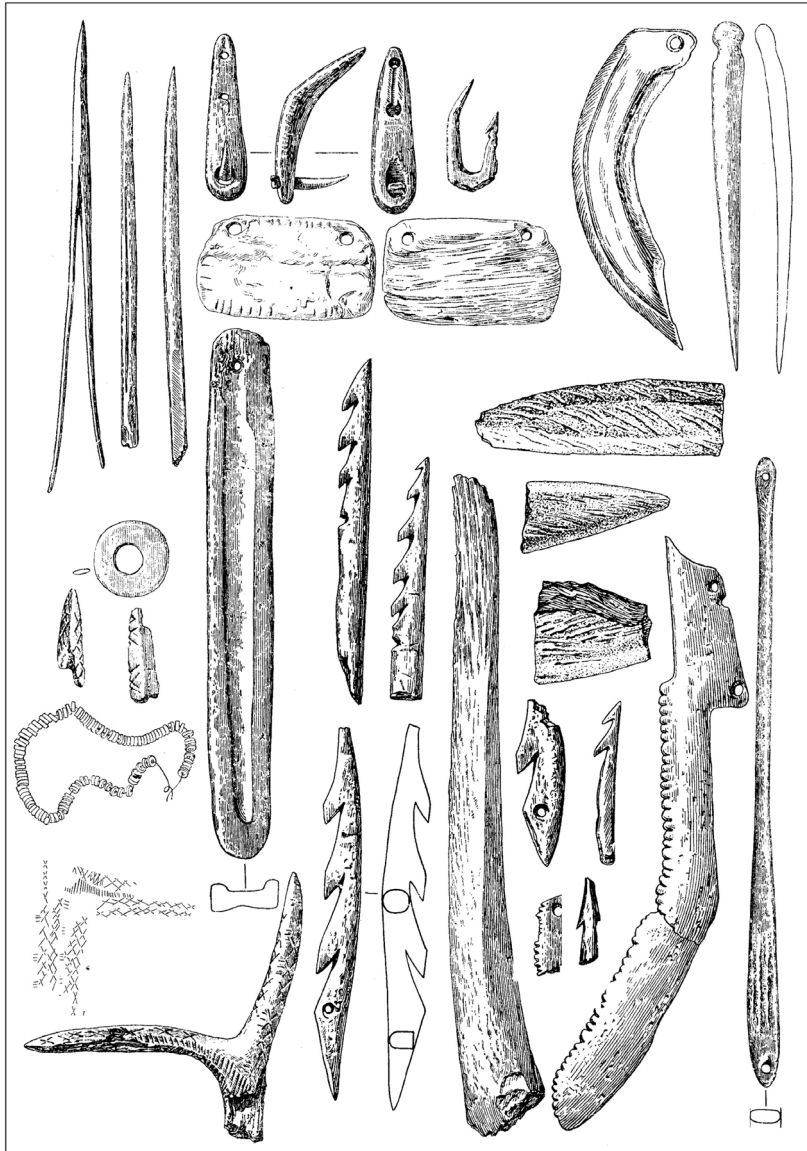
11) Кириллов И.И., Верхотуров О.Г., «Новые неолитические могильники из Вост. Заб. и их значение в определении этнокультурных связей местных племен», «Древн ее Заб. и его культурные связи», Новосибирск, 1985. (키릴로프 И.И., 베르호투로프 О.Г., 『자바이칼 동부에서 새로운 신석기시대 분묘군과 그 재지부족 문화인종 연계성의 의미』, 『고대 자바이칼과 그 문화연계성』, 노보시비르스크, 1985.)

되었다. 작살촉은 16점에 불과하다. 이 중 많은 것에는 줄을 고정시키기 위한 구멍이 삽입부 아래쪽에 나왔다. 낚시 바늘은 뼈로 만들어졌다. 또한 큰 자갈돌로 된 어망추가 발견되었다. 밝은 녹색의 옥으로 된 장신구인 납작한 구슬과 고리도 발견되었다(도 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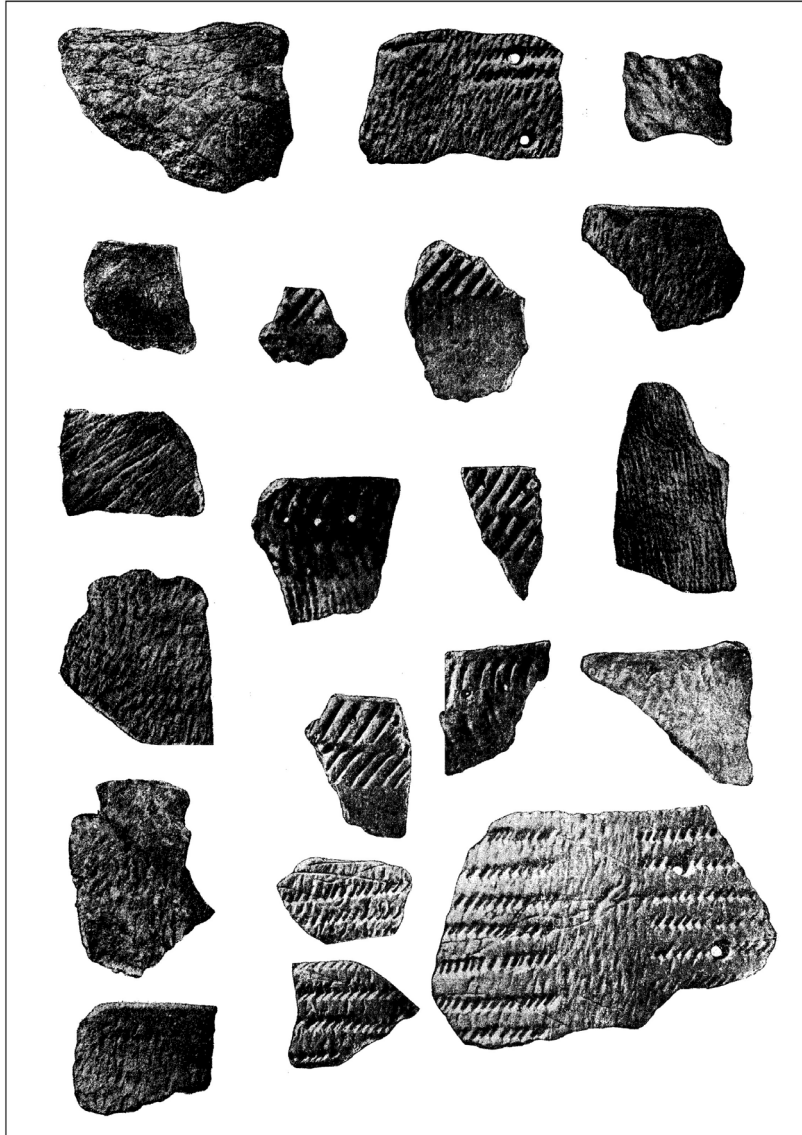
도 2. 실킨스카야 동굴, 석기¹²⁾

12) Окладников А.П., «Шилкинская пещера-памятник древней культуры верховьев Амура», «Труды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й археологической экспедиции» 1, Древние культуры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Материалы и исследования по археологии СССР (АН СССР, Институт археологии)» 86, 1960. (Окладников А.П., 『아무르 상류 고대문화의 실킨스카야 동굴 유적』, 『극동고고학조사단 자료집』 1, 극동의 고대문화, 『소련고고연구자료집』 86, 소련과학원, 고고학연구소, 1960.)



도 3. 쉘킨스카야 동굴, 골각기¹³⁾

¹³⁾ Окладников А.П., 앞의 논문, 1960.



도 4. 실킨스카야 동굴, 토기¹⁴⁾

동굴에서 큰사슴, 멧돼지, 노루(Capreolus capreolus), 마랄(maral), 사향노루(Moschus), 마르모트(Marmota), 토끼, 다람쥐, 흰족제비, 검은 담비, 살쥬이, 여우, 늑대, 그리고 다양한 조류의 뼈가 발견되었다. 동물 뼈에는 개뼈가 대부분이다. 뿐만 아니라 많은 물고기 뼈가 수습되었고 용철갑상어, 곤들매기, 송어,

¹⁴⁾ Окладников А.П., 앞의 논문, 1960.

붕어, 메기, 창꼬치, 잉어로 추정된다.

가장 귀중한 수습품으로는 아주 상태가 양호한 인간 두개골이다. 동굴 내 피장자는 의례에서 삶의 기본인 피로 상징되는 흙으로 덮여있었다. 공반유물로는 수렵 및 어로도구를 위시하여 옥제구슬과 지환, 그리고 자개편이 들어간다. 형질학적 특성상 쉘킨인의 두개골은 시베리아 동부 에벤키인과 아주 가깝다. M.G. 레빈은 피장자의 두개골이 바이칼형에 속한다고 판정하였다.

다른 유사 수습품은 보다 늦은 시기 유적인 멘자강(Menza)유역 예고르키나(Egorkina)동굴 연구와 관련된다. 동굴은 매장공간임과 동시에 수렵인들의 피난처로 활용되었다. 그곳에서 인골 2개체와 함께 동물 뼈, 석기, 금속기, 골각기, 토기가 발견되었다. 동물 뼈에는 만주사슴(*Cervus canadensis xanthopygus*), 불곰, 노루(*Capreolus*), 사향노루(*Moschus*), 여우, 토끼, 검은담비, 개, 말, 새, 새앙토끼의 뼈가 포함된다. 석기 가운데 50여개의 대부분의 경우 파손되고 무디어진 끝을 갖는 양날석촉류, 대형 양면가공 소도 공부, 굽개, 스크래퍼, 침두기, 조각도, 적토의 흔적이 남은 납작한 자갈 등으로 나뉘어진다. 골각기는 창, 사냥용 침핀, 뜨개용 도구, 납작한 사다리꼴 모양의 판이 있다. 장신구로는 마랄 송곳니로 만들어진 매달개, 마르모트 앞니, 마연한 노루 지골, 석제구슬이 있다. 매장유구에 원저와 평저 토기 두 점이 공반되었다. 수습품 가운데 청동기(주조 단면 사각 송곳, 나뭇잎모양의 주조 청동촉, 편평한 소도편)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 수습품 일체는 청동기시대 초기로 편년된다. 그러므로 이 유적은 청동기시대 초기에 해당하고, 약 4천년 전으로 편년된다.¹⁵⁾

자바이칼 신석기시대는 대형고분군으로 대표된다. 그 중 자바이칼 서부 포파노브스키(Fofanovski)고분군이 가장 유명하다. 그러나 아긴스키(Aginski)지역 노지호수(Nozhi lake) 주변 고분군, 쉘카강변 모로도브스크(Molodovsk)마을의 고분군, 치카강(Chika river) 유역 진도(Zhindo)마을 매장유구, 멘자강 유역 토크이(Tokui)골짜기 고분도 흥미롭다.

스레텐스키(Sretenski) 구역 모로도브스크마을에 소재하는 신석기유적은 주거지와 고분군이 포함된다. 주거지에서는 3개의 문화층이 파악되었고, 그 중 2개의 상층은 금속기시대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신석기시대 퇴적층에서 화덕 잔존물 3개가 발견되었으며, 핵석 준비물, 깨어진 자갈,

15) Семина Л.В., 『Кристинкина пещера : памятник раннего металла Юж. Заб.』, 『По следам древних культур Юж. Заб.』, Новосибирск, 1983. (세미나 L.V., 『크리스틴키나 동굴 : 자바이칼 남부 금속기시대 초기 유적』, 『자바이칼 남부 고대문화의 흔적을 따라서』, 노보시비르스크, 1983.)

단면, 연필형, 원추형 핵석, 드릴 핵석이 발견되었다. 편평한 것 중에는 조합식 날, 소형긱개, 소형자르개 그리고 양면가공삽입구가 발견되었다. 파편으로부터 긱개끝부분, 톱, 새김칼, 양면소도, 긱개를 만들었다. 나머지 석기들은 자귀형을 하고 있다. 또한 금속뉘시바늘과 구리 슬래그가 발견되었다. 토기는 기벽이 두터운 파편이며, 토기 한 점은 복원하는데 성공하였다. 그 토기는 대형으로 기고는 40cm이다. 구연부는 직선형으로 위로 뺀어있고, 외면 가장자리 아래에는 압인문이 시문되어 있고, 그 아래에는 장방형 스탬프가 찍힌 용기대가 있다. 직선형 구연부에서 넓은 경부가 점차 좁아지면서 동부 쪽으로 이어지고, 잘 표현되지 않은 받침대 위에 얇은 저부가 형성되어 있다. 기벽 표면은 매끄럽게 마연되었다. 다른 토기 파편은 음각승문과 빗살문으로 덮여있다. 일부 두터운 기벽을 가진 토기편에는 풀과 탄화된 양모의 흔적이 발견되는데, 토기는 빗살문과 공열문으로 장식되어 있었다. 격자문 토기편도 수집품 중에 존재한다.

제2문화층에서 화덕 2기가 확인되었다. 출토품으로는 자갈파편, 원재료와 기둥형, 정면형, 원추형, 연필형 추심과 드릴 추심이 발견되었다. 편평한 것으로는 조합식 날, 화살촉, 소형송곳, 밀개 끝, 소형밀개, 소형자르개, 그리고 파편으로는 밀개 끝, 톱, 새김칼, 가장자리를 손질한 소도가 제작되었다. 자갈로 만들어진 도구는 대부분 다양한 자귀형태를 한 제품이다. 골각제 뉘시용 미끼, 끌모양의 도구, 토제인장, 멧돼지 송곳니로 만든 고리와 매달개가 발견되었다. 토기류는 얇은 기벽을 가진 토기의 파편이 대부분이다. 파편 대부분에 음각 승문이 있다. 문양으로는 빗살-점선, 곧은 주걱형, 좁은 반월형, 톱니무늬 등 여러 가지가 찍혀있다.

셀카강을 따라 300m 올라간 곳에 분묘군이 발견되었다. 분묘군은 35~40m 높이 남향 언덕사면에 위치한다. 돌무지는 남북으로 뺀 타원형을 이룬다. 발굴된 7기의 매장유구에서 나온 모든 인골은 적색토로 칠해져 있었다. 성인 2인, 유아 3인이 공동으로 매장된 유구도 발견되었다. 두개골은 밀집하게 이동되었고 약간 아래를 향해 숙여졌다. 다리는 무릎이 굽혀져 있고, 팔은 가슴 위에 놓여있었다. 성인은 반쯤 앉아서 등을 유구 벽에 기댄 형상이고, 두향은 북향이다. 다리 부분에 영아의 인골이 놓여있었다. 두 유아의 경우 얼굴은 성인을 향하게 보고 있고, 몸은 옆으로 구부린 채 놓여있었다. 다른 두 기의 매장유구에서는 유아가 반쯤 앉은 형상으로 북향을 두향으로 한 것도 발견되었다. 한 개체는 두개골 뒷부분이 파손되어 있다. 마랄 송곳니로 만든 매달개, 지환 및 완식, 장식된 골각제 판의 파편, 조합식 작살, 28.5cm에 이르는 삼각형으로 굽은 짐승 늑골로 만들어졌으며 반타원형 병부를 가진 검, 작살 단면 가공 축과 같은 골각제 장신구를 포함하는 다양한 유물들이 발견되었다. 뿐만 아니라 가장자리로 쌍원뿔형 구멍이 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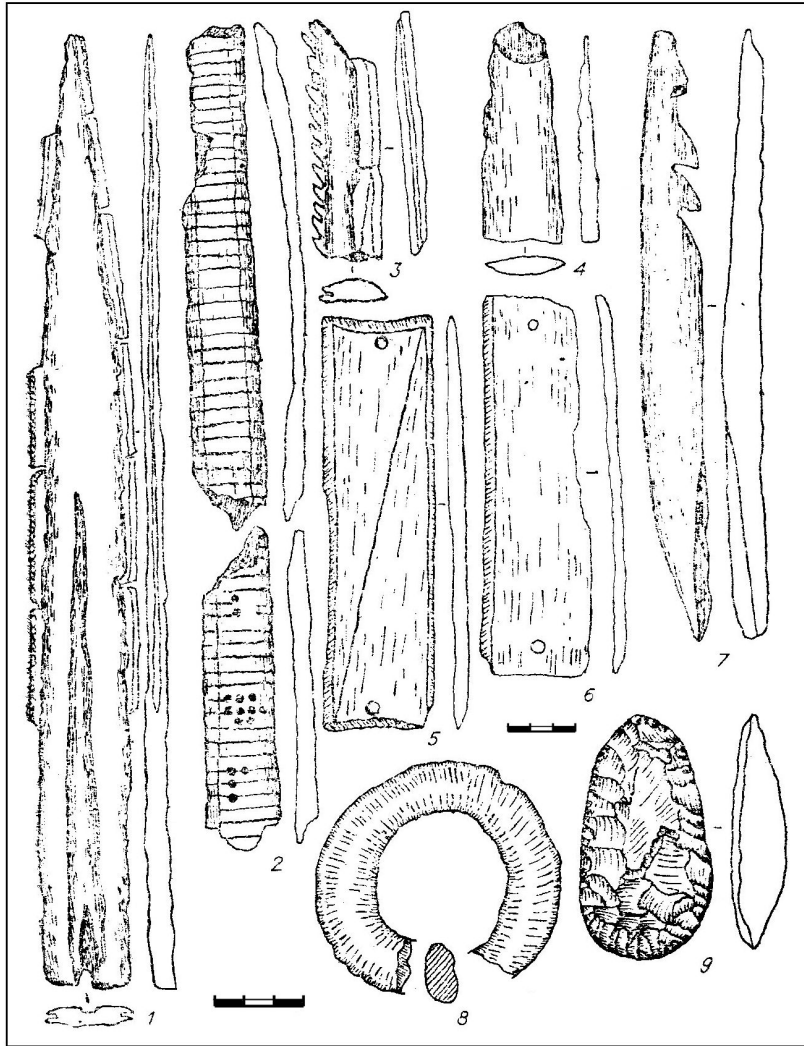
장방형 골제소형편, 다양한 형태와 크기의 조개로 된 단추 및 작은 판, 패각 석회 암제 소형 원통형 구슬도 발견되었다. 석제품은 소량인데, 소도형 석제판과 석제 박편, 매달개, 추심, 다면체 자르개(끌), 타원형 소형자귀와 침두기가 있다. 분묘군 자료는 주거지 제2층의 유물과 일치한다(도 5·6-1~33).

노지호수 주변 고고유적군에는 호수의 사면과 주변 언덕에 관련된 주거지, 분묘군, 성지가 있다.¹⁶⁾ 연대범위는 신석기시대부터 초기철기시대에 이르기까지 넓다. 호수 동쪽 연안에는 신석기시대에 해당하는 두 개의 분묘군이 발견되었다. 호수 사면 가장자리에 있는, 부분적으로 훼손된 2기의 매장유구와 흙으로 칠해지고 제대로 놓여있지 않은 뼈, 그리고 옆에 놓인 토기편 3점, 송곳, 소도자형 판 1점을 동반하는 다른 1기의 유구가 먼저 조사되었다. 두 번째 매장유구에서는 목 부분에 옥제 끌 형태를 하는 펜던트와 진주 구슬편, 멧돼지 송곳니로 된 매달개, 사선시문대가 돌아가는 바늘통, 빨로 된 소도자편, 석제 조합식 날, 추심, 굽개, 끌-굽개가 놓여있었다. 두번째 분묘군은 호수 사면에서 남쪽으로 300m 떨어진 곳에 위치한다. 매장유구 표면에 수직으로 세워진 몇 개의 편마암 몇 개의 편마암이 판석이 보인다. 묘광 내 수직으로 세워진 판석으로 축조된 석관이 남아 있었다. 수직으로 설치된 표지가 있는 매장유구 내 돌 사이에 첨저에 3단의 빗살 문이 시문된 반 달갈형 토기가 놓여있다. 타원형 묘광을 가지는 매장유구에서는 인골은 오른쪽을 향하여 구부리고 있고, 두향은 남향이나 서향이다. 뼈는 흙으로 심하게 칠해져 있다. 동반유물로는 패각으로 된 구슬, 톱, 매달개가 있다. 여기에 회색과 녹색 벽옥 조각을 손질해서 만든 인간과 동물을 연상시키는 동물늑골로 만들어진 소도집과 석제 조합식 날 세트, 소형끌, 화살촉 등이 발견되었다(도 7).

1. 오논강 유역, 인고다강 유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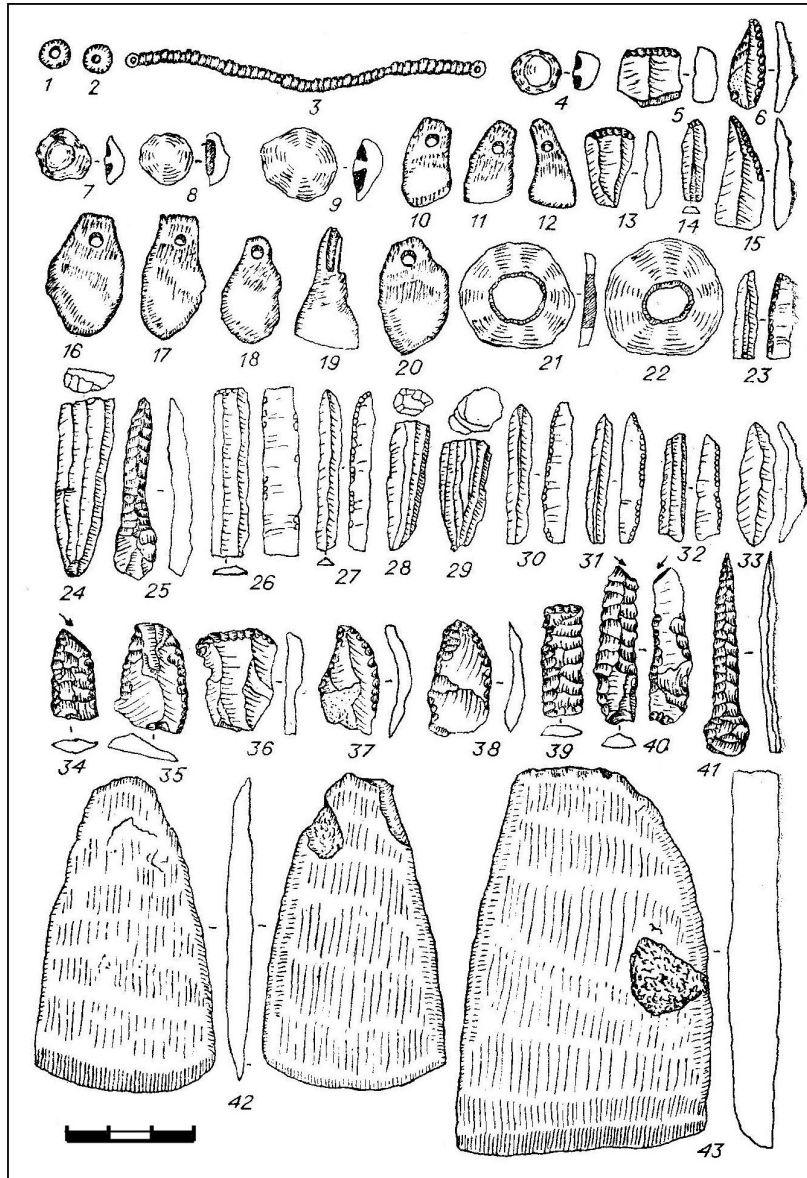
자바이칼 동부 신석기인의 생업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취락유적에서 나타나는 유구로 특징지을 수 있다. 취락유적은 꽤 많이 알려졌으나, 발굴조사는 한정적으로 이루어졌다. 자바이칼 동부에 있어서 비교적 잘 연구된 유적은 오논강 유역의 친단트(Chindant), 아른-잘가(Aryn-Zhalga)유적, 인고다강 유역의 다라순(Darasun), 설카강 유역의 타라칸(Talakan), 우스트-자피자크(Ust-Dzhapidzhak), 이쉬한(Ishihan), 아르군강 유역의 칸가(Kanga)와 두로이(Duroi) 유적이다. 이 자료는 오논스카야문화와 인고단스카야문화로 나뉜다.

16) Окладников А.П. Кириллов И.И., 앞의 논문, 1980, 176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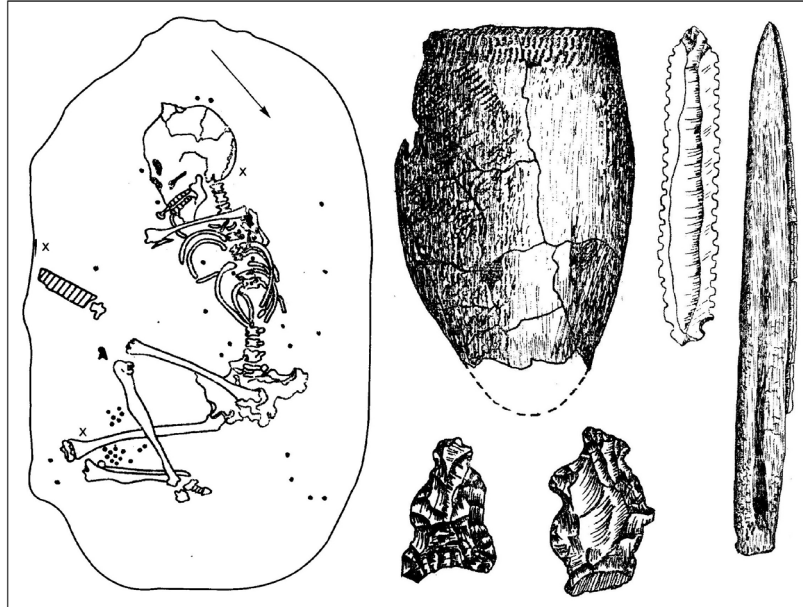
도 5. 몰로도프스크 고분군
1~8 골각기, 9 석기¹⁷⁾

17) Кириллов И.И., Верхотуров О.Г., 앞의 논문, 1985.



도 6. 몰로도프스크 고분군 출토품 (1~33), 다라순 출토품 (34~43)
 1·2·4·7~9·21·22 패각, 3·10~13·16~20 골각기, 23~43 석기¹⁸⁾

¹⁸⁾ Кириллов И.И., Верхотуров О.Г., 앞의 논문, 1985.



도 7. 노지호수 주변 제 2 고분군, 평면도 및 출토품¹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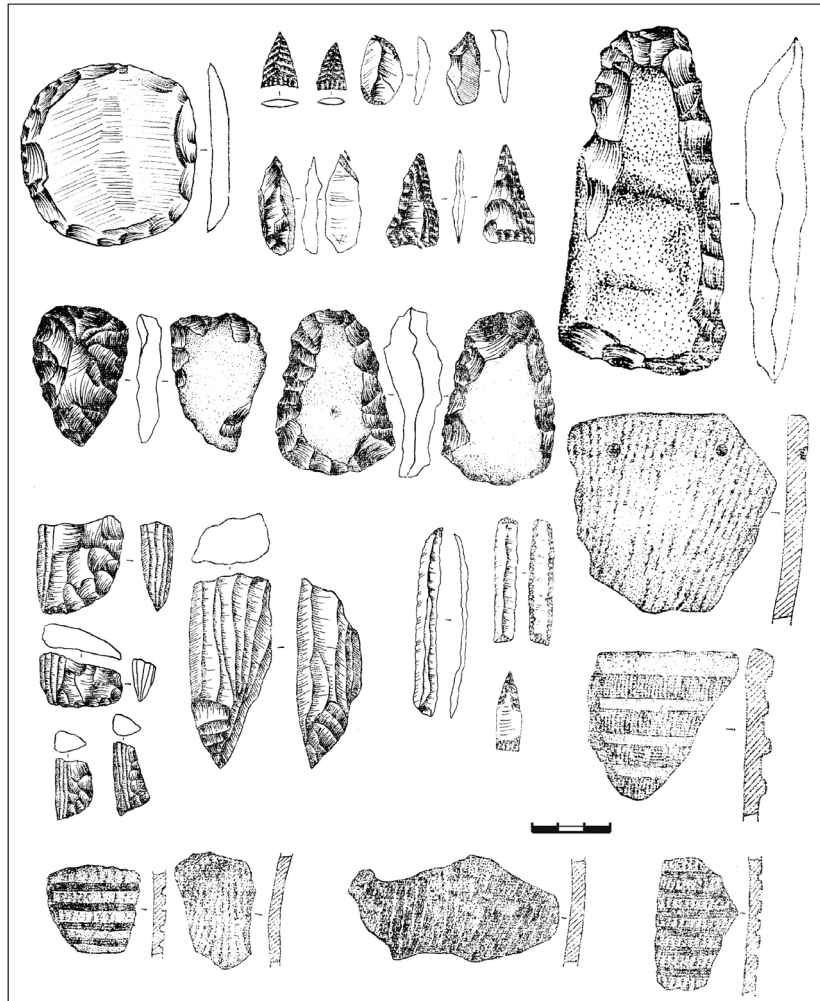
오논스카야문화는 자바이칼의 스텝지구에 특징적이다. 오논스카야문화는 오논강 유역의 친단트와 아른-잘가와 같은 취락에서 잘 나타난다. 치코이와는 달리 그 강가에서 선사인들은 옥수와 벽옥을 채집하였고, 큰 자갈에서 끌모양, 굽개모양의 도구를 제작하였다(도 8). 친단트 문화층에서 야생동물뼈 외에도 자바이칼 지역에서 현재까지로는 가장 연대가 올라가는 개뼈가 발견되었다. A.P. 오클라드니코프와 II. 키릴로프의 견해²⁰⁾에 따르면 이 문화 발달 후기단계에서 복합 채집과 초기농경이 발생하였다. 초기농경설에 관해서는 추가적인 증거가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오논스카야문화에 전술한 아긴스키스텝지구 노지호수 주변 석 관묘로 구성된 분묘군이 해당된다.

아긴스키구역 아른-잘가 유적에는 신석기발전단계(기원전 4~3천년 후반기)와 초기청동기시대에 해당하는 3개의 문화층이 확인된 취락이 속한다. 신석기 유물은 두께 10~15cm 흑색 매장 내부토에 국한되어 나왔다(도 9·10). 이에 관해 다음 참고문헌에 종합적으로 기술되어 있다.²¹⁾ 석기류로는 핵석 재료, 석제 가공품, 공구류가 있다. 각기둥형, 원통형, 원추형 핵석이 발견되었다. 얇은 박편으로

19) Кириллов И.И., Верхотуров О.Г., 앞의 논문, 19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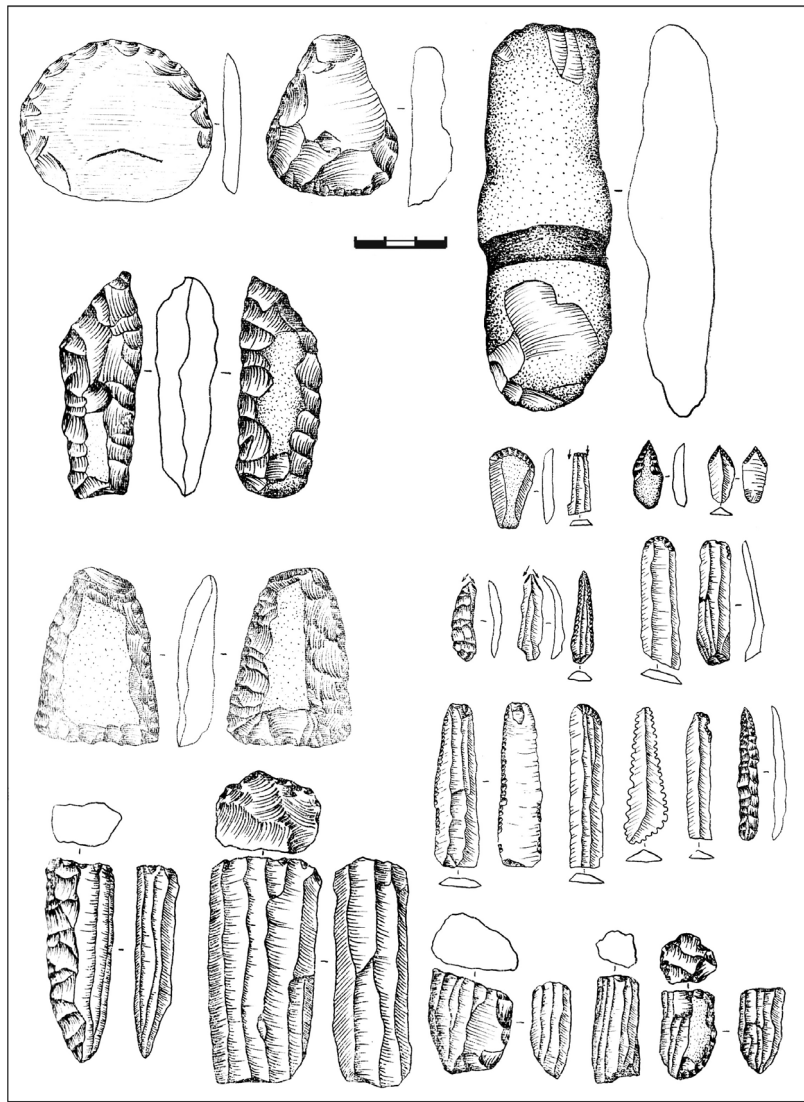
20) Окладников А.П., Кириллов И.И., 앞의 논문, 1980, 176쪽.

21) Константинов М.В., Константинов А.В., 앞의 책, 2011, 16~21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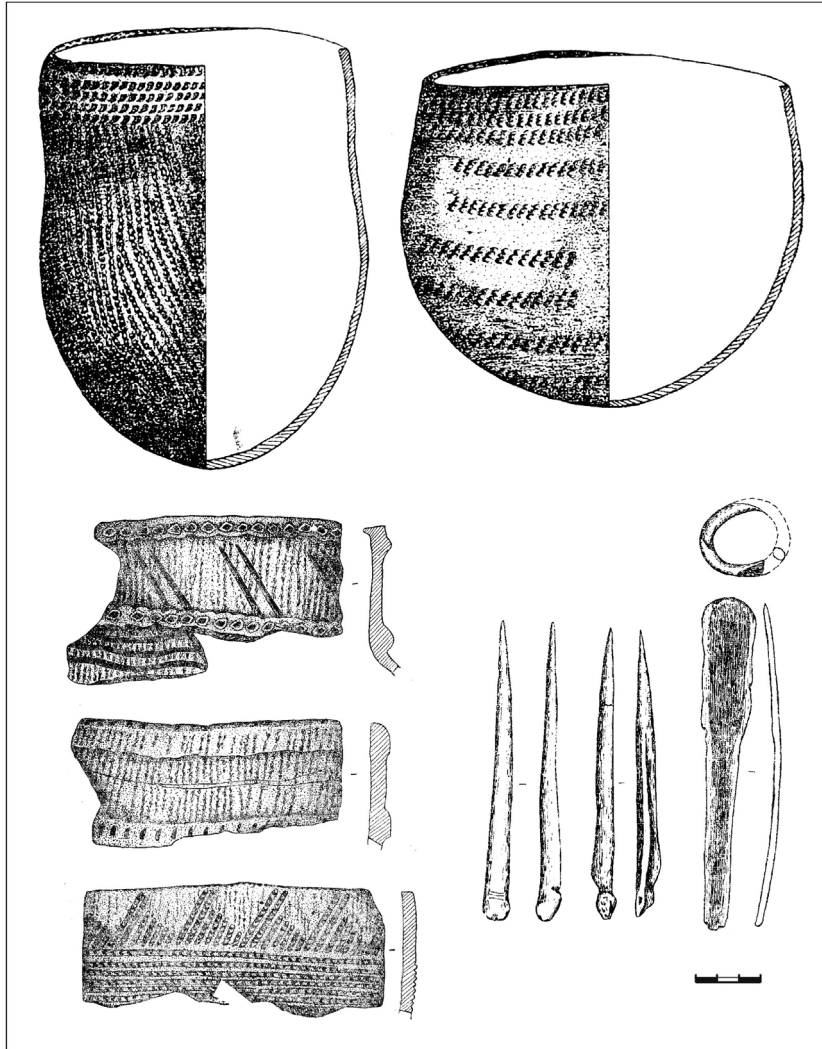
도 8. 친탄트 취락, 석기²²⁾

²²⁾ Окладников А.П., Кириллов И.И., 앞의 논문, 1980, 176쪽.



도 9. 아른-잘가 취락, 석기²³⁾

²³⁾ Окладников А.П., Кириллов И.И., 앞의 논문, 1980, 176쪽.



도 10. 아른-잘가 취락, 토기, 골각기²⁴⁾

이루어진 도구도 많이 나타나는데, 조합식 날, 화살촉, 굽개-침두기, 밀개, 소형송곳, 소형밀개, 자르개, 톱, 굽개-침두기, 침두기-송곳, 톱니날을 가진 소도가 해당된다. 박편석기에는 다양한 형태의 굽개, 밀개, 굽개-침두기, 중형침두기, 자르개가 있다. 많은 파손된 자귀, 초퍼형 석기, 석부, 밀개, 공이, 고리, 연석, 모루판, 석검, 해머, 추, 낚시용 미끼가 있다. 마연된 소형자귀가 발견되었다. 뼈, 뿔, 송곳니가 다양하게 사용되었다. 그것으로 바늘-침두기, 끌형 도구, 화살촉, 활 이음판,

²⁴⁾ Okladnikov A.P., Kirillov I.I., 앞의 논문, 1980, 176쪽.

토제인장, 고리, 막대를 직선되게 가공하는 도구, 매달개를 만들었다. 토기편은 토기 20여점에 해당한다. 그 중 하나는 기고 24cm, 경부 직경 18~20cm, 직선 구연에 원저를 가진다. 기벽에는 거친 물질 자국이 있다. 상단에는 좁은 반월형의 홈이 난 주위의 흔적으로 보이는 격자문대가 있다. 다른 두 점의 토기 상부에는 빗살문이 있다. 문양은 토기의 1/3을 덮고 있다. 토기는 원저를 가진다. 또 하나의 토기는 기고 24cm, 경부 30cm, 원저의 것으로 비교적 낮고 넓은 형태를 가진다. 윗부분에서 저부에 이르기까지 가장자리 빗살문이 찍혀있다. 생활구역 층에서는 화덕과 폐기물공이 있다. 취락에서 오소리, 개, 토끼, 멧돼지, 산양(saiga), 큰사슴, 만주사슴(*Cervus canadensis xanthopygus*), 사슴(*Cervidae*), 들소, 야생당나귀, 말뺨이 발견되었다. 뿐만 아니라 조류와 약간의 메기와 잉어뼈와 같은 어류뼈도 발견되었다.

취락으로부터 북동쪽으로 200m 떨어진 곳에 신석기 특징을 가진 분묘군이 위치한다. 거기에 크지 않은 판석으로 축조된 매장유구가 발견되었다. 타원형의 묘광 60~85cm 깊이에 인골이 놓여있었다. 한 매장유구에서는 영아를 동반한 여성 매장이 확인되었다. 나머지는 모두 단독으로 매장된 것으로 다리는 굽혀져 있고, 두향은 북쪽에 약간 치우친 동향이다. 2기의 매장유구에서는 두향이 남향이다. 동반유물로는 골제원통형 구슬, 마랄 송곳니로 만든 매달개, 작은 중앙에 구멍이 뚫린 장방형의 소형 골제판 흰색 옥제 환이 있다. 골제판은 신발이나 옷을 장식하는 꽃잎문양으로 자작나무껍질에 덧붙여졌다. 두 매장유구에서는 양날검 골제심이 나타났다. 석기류로는 다우르스카야(Dauriskaya)기법으로 제작된 다양한 조합식 날, 침두기, 송곳, 자르개, 소형 화살촉이 있다. 한 매장유구의 부장품으로 얇은 섬유질 흔적이 기벽에 남아있는 구연외반 토기편이 발견되었다.

인고딘스카야문화는 쿠쿠슈키나 파드(Kukushkina pad)취락과 다라순(Darasun) 취락으로 대표된다. 다라순에서는 양면가공석촉이 대량 부장된 봉분을 갖는 매장유구가 발견되었다(도 6-34~43·11-1~16, 30~37).²⁵⁷

2. 쉴카강 유역, 아르군강 유역

쉴킨 신석기는 특별한 세계를 보여준다. 쉴킨스카야동굴을 제외하고도 많은

²⁵⁷ Кириллов И.И., Ковычев Е.В., Кириллов О.И., 『Дарасунский комплекс археологических памятников. Восточное Забайкалье』, Новосибирск : Изд-во Ин-та археологии и этнографии СО РАН, 2000, с.176. (키릴로프 И.И., 코브체프 Ye.V., 키릴로프 O.I., 『자바이칼 동부 다라순스키 고고유적』, 노보시비르스크 : 러시아과학원 시베리아지부 고고학민족학 연구소 출판소, 2000, 176쪽.)

유적들이 오논스카야문화와 인고딘스카야문화의 혼재된 특성을 증명해준다.²⁶⁾ 쉴카강 유역 모로도브스크마을 주변 매장유구 자료가 이 상호관련성을 보여준다. 부장품으로 취락유적에서는 거의 보이지 않는 옥제마연도구와 장신구가 들어간다.²⁷⁾

아르군에서 석기시대에 관한 초기 조사로 여러 문화층으로 구성된 두로이(Duroi)유적과 신석기층이 있는 볼샤야 칸가(Bolshaya Kanga)유적을 발굴할 수 있게 되었다.²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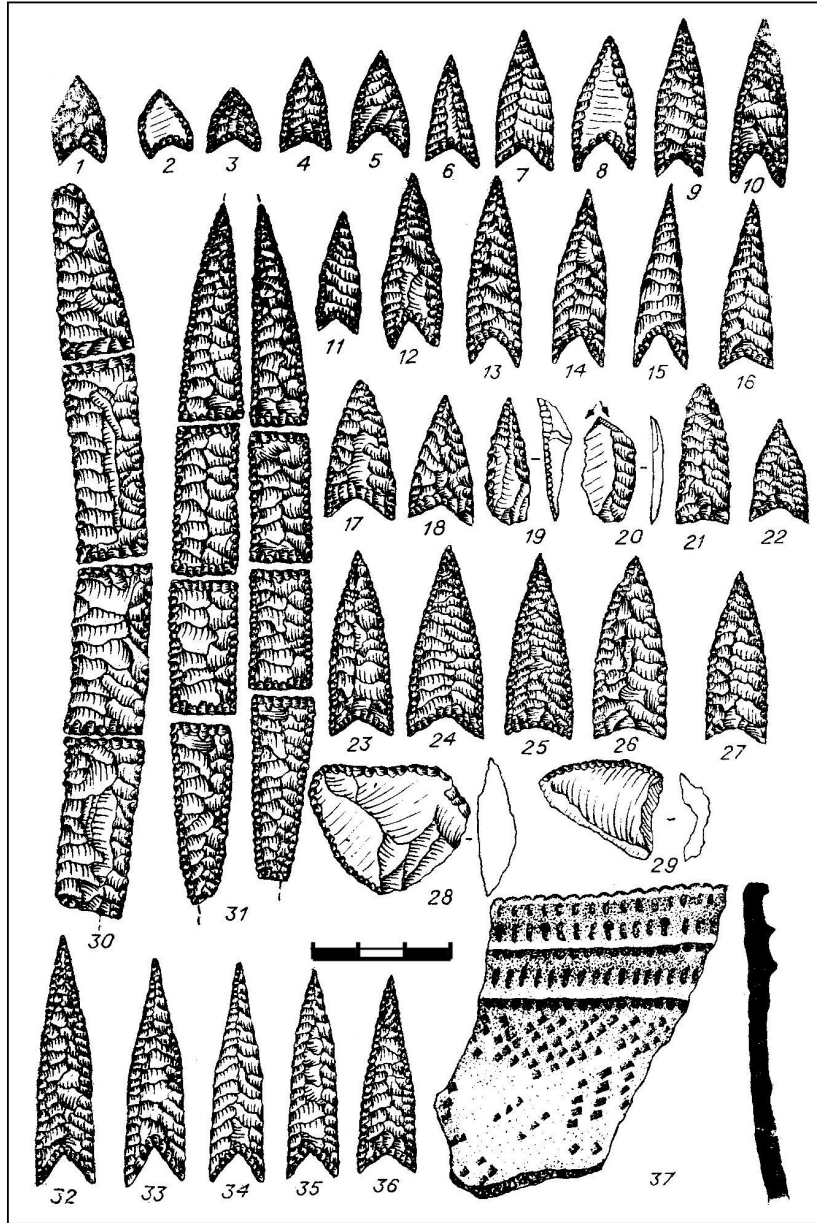
프리아르군스키지역 두로이마을에는 다양한 시기로 편년되는 12개의 유적이 알려져 있다. 그 중 한 취락은 여러 층에 걸쳐있다. 신석기시대층은 제3층이다. 거기에서 결합식도구, 굽개, 조합식 날이 발견되었다. 토기류에는 평저와 원저의 통형토기편이 있는데, 구연부는 비스듬하게 잘려진 형태를 하고, 경부쪽에는 원공(원추형구멍)을 가지고 있다. 토기 표면은 거친 승문으로 덮여있다. 골제 활부속구 편이 집적된 것이 발견되었다. 제4문화층에는 박편 20점, 소형판 32점, 잘게 가공된 소형판과 자르개가 발견되었다. 토기편 외면은 석회질로 덮여있는데, 여기서 큰 밧줄 모양을 한 기술적 문양의 흔적을 볼 수 있다. 이것은 신석기시대 특징을 가지는 대형원저토기에 해당한다.

두로이 마을로부터 10km 떨어진 볼쇼이 두로이(Bolshoi Duroi)언덕에 취락 2군과 신석기와 청동기시대 주거지 2기가 통합된 유적군이 위치하는데, 자료상 어로(작살, 어망추, 생선 보관공 등)와 원시농경(갈돌과 갈판, 공이, 고리)의 흔적이 보인다. 볼샤야 칸가 제1취락은 완만한 남서사면에 위치하고 면적은 약 1500m²에 이른다. 발견된 곳에서 생활과 관련된 구덩이가 발견되었는데, 그 안에는 담수패류 패각편, 어류와 조류뼈로 채워져 있었다. 3개 문화층이 밝혀졌으며, 제 1층 자료는 박편, 얇은 판, 썰기형 핵석, 드릴 핵석, 새기개, 끌 모양 도구로 대표된다. 썰기형 핵석으로는 굽개와 침두기가 만들어졌다. 얇은 판으로는 삼입물(부착물, 덮개), 화살촉, 침두기, 날, 굽개, 다우르스카야 기법으로 된 침두기를

26) Константинов М.В., Константинов А.В., 앞의 책, 2011.

27) Окладников А.П. Кириллов И.И., 앞의 논문, 1980, 176쪽.

28) Кириллов И.И., Дятчина Н.Г., 『Хозяйство позднего неолита : ранней бронзы в Нерчинской Даурии(по материалам исследований в Приаргунском районе 1991-2001гг.)』, 『Центральная Азия и Прибайкалье в древности : Сборник научных трудов』2, Улан-Удэ : Изд-во Бурятского ун-та, 2004. с.13-22. (키릴로프 И., 닛트치나 N.G., 『네르친스카야 다우리아의 신석기시대 후기~청동기시대 초기 생업 (1991~2001년도 프리아르군스키 지구 연구자료)』, 『중앙아시아와 프리바이칼의 고대 : 연구자료집』2, 울란우데 : 부랴티아대학교출판사, 2004, 13~22쪽.)



도 11. 다리순 고분군 출토품 (1~16·30~37), 아르타 출토품 (17~29)
1~36 석기, 37 토기²⁹⁾

29) Кириллов И.И., Верхотуров О.Г., «Новые неолитические могильники из Вост. Заб. и их значение в определении этнокультурных связей местных племен», 『Древн ее Заб. и его культурные связи』, Новосибирск, 1985. (키릴로프 И.И., 베르호투로프 О.Г.,



도 12. 부티흐 암각화³⁰⁾

만들었다. 박편으로는 굽개, 결합식 도구를 제작하였다. 취락에서 자귀와 굽개가 보인다. 방추차와 중앙에 쌍원뿔형 구멍을 가진 석제원판 2점을 특별히 지적할 필요가 있다. 수습품 가운데는 모루와 삼각형 연석, 연석봉이 있다. 골제품은 적는데, 바늘-첨두기, 부착구, 덧대는 조각, 새김문양으로 덮인 구멍 난 골단이 이에 해당한다. 그 층에 민물패각으로 된 다양한 형태의 매달개 4점이 발견되었다. 토기류에는 거친 천과 밧줄 자국이 찍힌 원저 토기가 있다. 제2층에는 굽개, 결합식 도구, 화살촉이 발견되었다. 원통형, 각기둥형, 썰기형 핵석류가 있다. 얇은 판으로 굽개, 조합식 날, 접합구, 첨두기, 자르개를 만들었고, 그리고 아랫부분이 넓고 견부가 있는 모양의 첨두기도 있다. 유형으로는 다우르 기술로 제작된 첨두기가 있다. 둥그스름한 굽개, 인부는 둥그스름하고 등 부분은 좁은 자귀가 있다. 골각기는 많이 수집되었는데, 공구류, 생활용구류, 장신구류가 있고, 그 중 작살, 바늘, 첨두기, 소도자 테두리, 매달개, 골제품편이 있다. 그 층에서 청동주조에 널리 사용되었던 흑연조각이 발견되었다. 토기류에서는 원저토기편, 그리고 그것보다는 드물지만 평저토기편도 있다. 제 3 문화층에서는 첨두기와 굽개, 골제품이 발견되었다. 토기는 원저토기편과 잔 모양의 접시가 나타났다. 취락 광장에서 매장유구가 발견되었다. 재매장묘와 함께 일반적인 매장유구도 있다. 후자에서는 취락에서 발견된 것과 유사한 굽개, 첨두기, 원판형 굽개가 발견되었다. 골제품에는 바늘형태를 한 화살촉 류와 바늘-첨두기, 마랄 송곳니와 패각으로 만들어진 매달

『자바이칼 동부에서 새로운 신석기시대 분묘군과 그 재지부족 문화인종 연계성의 의미』, 『고대 자바이칼과 그 문화연계성』, 노보시비르스크, 1985.)

30) Окладников А.П., Запорожская В.Д., 『Петроглифы Забай калья』2, Л., Наука, 1970, с.263. (Окладников А.Р., Запорожская В.Д., 『자바이칼의 암각화』2, 레닌그라드, 나우카, 1970, 263쪽.)

개가 포함된다. 또 다른 매장유구군은 남쪽 사면에 위치하였다. 매장유구에서 소도자 테두리, 침두기, 낚시용 미끼가 발견되었다. 한 분묘에서 대형 석제연석이 화덕 위에 놓여서 묘광 대부분을 덮고 있었다.³¹⁾

3. 암각화

특별히 암각화를 언급할 필요가 있다. 검붉은 흙으로 만주사슴, 멧돼지, 활을 든 사람의 형상, 수직선이 표현된 쉘킨스키(Shilkinski)지역 부티하(Butikha)를 신석기로 둘 수 있다. 우스트-초론(Ust-Tcoron)지역의 보르진스키(Borzinski)구역에 사슴 세 마리 형상이 검붉은 색으로 표현되어 있다.³²⁾ 멘자강 유역 고란코보(Gorankovo)에서 사만을 닮은 인간형상이 붉은 흙으로 그려져 있다. 모든 암벽화 아래에는 아름답고 다양한 석제품과 함께 제단이 위치한다. 샤만-고라(Shaman-Gora)(아레이강, 히록강)지역 암굴에 강력한 들소(크기 50~60cm)를 사냥하는 작은 인간들의 모습이 잘 표현된 장면이 펼쳐진다. 사냥에는 방울을 든 사면이 참여하였다. 돌로 된 캔버스 아래(암각화 아래) 3.0×1.5m정도에서 석촉편이 발견되었다. 아마도 고대 수렵인들이 들소그림에 활을 쏘았던 것으로 추정된다.³³⁾ 역시 (서로를 덮고 있는)들소가 표현된 브르킨스키(Byrkinski)암벽화는 신석기에 해당된다. 과거에는 코뿔소라고 알려졌으나 이는 코뿔소가 아니다.³⁴⁾ 신석기시대 서식동물 가운데 들소의 존재는 몇몇 자바이칼지역 임시숙영지(예를 들면 우스트-멘자4, 제4문화수평선)를 미루어 판단하건데 충분히 증명된다.

Ⅲ. 생업, 문화유형

이 지역 신석기시대 주민의 생업, 문화유형은 지리기후적 요건에 따라 결정된다. 타이가지대에서는 사냥꾼이 성스러운 사슴, 큰사슴, 노루를, 스텝지대에서는 사냥꾼이 야생당나귀, 말, 가젤(gazelle), 큰코영양을 사냥하였다. 많은 화살촉

31) Кириллов И.И., Ковыльцев Е.В., Кириллов О.И., 앞의 책, 2000, 176쪽.

32) Окладников А.П., Запорожская В.Д., 앞의 책, 1970, 263쪽 ; Мазин А.И., 『Древние свят илища Приамурья』, Новосибирск, Наука, 1994, с.141. (마진 А.И., 『아무다리야 고대 사원』, 노보시비르스크, 나우카, 1994, 141쪽.)

33) Константинов М.В., Константинов А.В., 앞의 책, 2011.

34) Мазин А.И., 앞의 책, 1994, 141쪽.

의 존재는 복잡한 구조로 이루어진 활을 포함하여 활을 널리 사용하였음을 알려 준다. 개뼈의 존재는 개의 가죽화가 이루어져서 사냥에 이용하였는지에 관한 의문을 제기할 수 있게 한다. 물론 이러한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그들은 강가나 호숫가에서 어로활동을 하였다. 어로도구류는 자갈어망추와 작살의 존재로 복원된다. 프리바이칼 지역과 달리 결합식 낚시바늘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전통적 채집과 야생식물 활용은 초기농경을 보완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견해가 제시된 바 있다. 한편 이에 대한 증거는 아직 발견되지 못하였다.

주거지 흔적은 돌로 쌓은 화덕의 형태와 평범한 노지로 남아있다. 당시 표토를 약간 파서 만든 주거지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이전 시기와 기술적 측면에서 비교했을 때 전통적인 석재가공법은 지속적으로 사용되면서 보완되었다. 다양한 썰기형 석핵을 포함하는 소형석핵을 이용한 눌러떼기 기법이 널리 전파되었다. 도구를 제작할 때 가장자리를 가공하는 소위 ‘다우르카야 기법’은 동부 자바이칼 기술의 특징이다. 이런 도구(대부분은 보통 뚜르개, 송곳으로 추정되는 다양한 종류의 침두기)를 만들기 위해서 단면 가공한 얇은 판을 이용한다. 오논스카야문화 유적에서 삼각형이나 사다리꼴 자갈돌로 덧붙이기 기법으로 만든 자귀형, 굽개형 도구가 널리 나타난다. 석재가공기술의 혁신 중에서 박기, 절단, 마연, 친공이 주목된다. 그러나 마연된 것은 드물다.

자바이칼 동부 신석기 토기 연구는 미흡하다. 이는 토기가 파편으로 발견된 것과 연관된다. 아주 드물게 몇몇 토기가 복원되기도 한다. 침저와 원저의 토기가 분포한다. 기고는 30~40cm에 이른다. 태토로 모래, 잘게 썰어진 풀, 양털이 이용되었다. 성형은 주걱을 이용하였고, 그것으로 표면을 치면서 조정하였다. 이 기술 ‘두드리기(tapping)’는 자바이칼 주민들이 다음 단계인 청동기시대에까지 성형방법으로 활용되었다.

지금으로부터 7천년 이전 시기에는 자바이칼 동부에 토기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 시대에 북쪽지역에는 우스트-카렐그스카야 문화(Ust-Karengskaya culture, 1만 3천년 전) 유적 연구와 관련한 다른 편년안이 있었다.³⁵⁾

35) Ветров В.М., 『Проблемы сходства в технике изготовления и орнаментации сосудов в ранних керамических комплексах Северной Евразии』, 『Современные проблемы археологии России : Материалы Всероссийского археологического съезда(23-28 октября 2006 г., Новосибирск)』1, Новосибирск : Изд-во Института археологии и этнографии СО РАН, 2006, с.173~176. (베트로프 V.M., 『유라시아 북부 초기 토기 제작법 및 문양 유사성의 문제점』, 『러시아 고고학 최신 문제점 : 전러시아고고학대회 자료집(2006년 10월 23~28일, 노보시비르스크)』1, 노보시비르스크 : 러시아과학원 시베리아지부 고고학민

IV. 맺음말

자바이칼 동부지역의 신석기시대와 청동기 이행기 연구에 있어서 일정부분 성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해결되지 못한 문제가 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³⁶⁾ 이것은 무엇보다도 지역별 조사의 불균형에 기인하며, 이 때문에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신석기문화 발전 그림을 제대로 제공할 수 없다. 또한 신석기화 과정의 절대연대 문제도 제대로 해결되지 못하였다. 이웃지역인 자바이칼 서부, 프리야무르 중부, 중국 동북지역과 달리 기술한 지역의 신석기 연구의 미흡함은 시베리아, 극동지역과 그 주변지역 고대 문화 발전의 전반적인 문화, 편년적 도식을 그리는데 어려움이 있다.

■ 투고일 2014년 1월 27일 | 심사완료일 2014년 2월 18일 | 게재확정일 2014년 2월 28일 ■

족학연구소 출판소, 2006, 173~176쪽.)

³⁶⁾ Гришин Ю.С., 『Проблемы периодизации неолита и энеолита Прибайкалья и Забайкалья』, Москва, 2000. (그리쉬인 Yu.S., 『프리바이칼, 자바이칼 신석기 및 금석병용기 시대 구분 문제』, 모스크바, 2000.)

참고문헌

- Кузнецов А. К., 『Приложение к атласу археологических предметов』, (рукопись хранится в Читинском областном краеведческом музее им. А. К. Кузнецова. (쿠즈네초프 A.K., 『고고지도 부록』.)
- Дебеч Г.Ф., 『Опыт выделения культурных компонентов в неолите Прибай калья』, 『Изв. ассоциации науч. исслед. Институты при физ.-мат. факультете 1-го МГУ』1·2, Москва, 1930. (데베츠 G.F., 『프리바이칼 신석기시대 문화요소 분류 시도』, 『모스크바국립대 자연과학대 연구회 소식지』1·2, 모스크바, 1930.)
- Ларичев В.Е., 『Неолитические памятники бассейна на Верхнего Амура』, 『Труды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й археологической экспедиции』1, МИА, № 86, М.- Л, 1960 г. (라리체프 V.Ye. 『아무르강 상류 신석기시대 유적』, 『극동고고학조사단 자료집』1, 『고고연구자료집』86, 모스크바 : 레닌그라드, 1960.)
- Окладников А.П., 『Шилкинская пещера-памятник древней культуры верховьев Амура』, 『Труды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й археологической экспедиции』1, Древние культуры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Материалы и исследования по археологии СССР (АН СССР, Институт археологии)』86, 1960. (오클라드니코프 A.P. 『아무르 상류 고대문화의 쉴킨스카야 동굴 유적』, 『극동고고학조사단 자료집 : 극동의 고대문화』1, 『소련고고연구자료집』86, 소련과학원, 고고학연구소, 1960.)
- Рижский М.И., 『Из глубины веков. Рассказы археолога о древнем Забай калья』, Чита : Восточно-Сибирское книжное издательство, 1965. (리즈스키 M.I., 『먼 과거로부터. 자바이칼 고대에 관한 고고학자의 이야기』, 치타 : 시베리아 동부 출판사, 1965.)
- Ларичев В.Е., Рижский М.И., 『Озёрный неолит и ранняя бронза Восточного Забай калья』, 『Сибирский археологический сборник』, Новосибирск, 1966. (라리체프 V.Ye., 리즈스키 M.I., 『자바이칼 동부 호수 연안 신석기와 청동기 초기』, 『시베리아 고고자료집』, 노보시비르스크, 1966.)

- Кириллов И.И., Конюхова А.Е., 『Памятники неолита и ранней бронзы в долине реки Ингода』, 『Учёные записки Читинского пединститута』18, Чита, 1968. (키릴로프 I.I., 코뉴호바 A.Ye., 『인고다강 유역 신석기, 초기청동기시대 유적』, 『치타 사범대학교 논문집』18, 치타, 1968.)
- Окладников А.П., Запорожская В.Д., 『Петроглифы Забайкалья』 2, Л., Наука, 1970. (오클라드니코프 A.P., 자포로즈스카야 V.D., 『자바이칼의 암각화』2, 레닌그라드, наука, 1970.)
- Окладников А.П., 『Ранняя история Забайкалья в свете новых исследований』, 『50 лет освобождения Забайкалья от белогвардейцев и иностранных интервентов』, Чита, 1972. (오클라드니코프 A.P., 『자바이칼 이른 시기 역사 새로운 연구』, 『백군과 외세로부터의 자바이칼 독립 50주년』, 치타, 1972.)
- Кириллов И. И., Рижский М. И., 『Очерки древней истории Забайкалья』, Чита, 1973. (키릴로프 I.I., 리즈스키 M.I., 『자바이칼 고대사 개설』, 치타, 1973.)
- Гришин Ю.С., 『Бронзовый и ранний железный века Восточного Забайкалья』, Москва, 1975. (그리쉰 Yu.S., 『자바이칼 동부 청동기, 초기철기시대』, 모스크바, 1975.)
- Окладников А.П., 『Древнее Забайкалье(культурно-исторический очерк)』, 『Быт и искусство русского населения Восточной Сибири』2, Забайкалье, Новосибирск, 1975. (오클라드니코프 A.P. 『고대 자바이칼(문화역사 개론)』, 『시베리아 동부 러시아인의 풍속 및 예술』2, 자바이칼, 노보시비르스크, 1975.)
- Кириллов И.И., 『Восточное Забайкалье в древности и средневековье』, Иркутск, 1979. (키릴로프 I.I., 『고대, 중세 자바이칼 동부』, 이르쿠츠크, 1979.)
- Окладников А.П., Кириллов И.И., 『Юго - Восточное Забайкалье в эпоху камня и ранней бронзы』, Новосибирск, 1980. (오클라드니코프 A.P., 키릴로프 I.I., 『석기시대, 청동기시대 초기 자바이칼 동남부』, 노보시비르스크, 1980.)
- Гришин Ю.С., 『Памятники неолита, бронзового и раннего железного веков лесостепного Забайкалья』, Москва, 1981. (그리

- 원 Yu.S., 『자바이칼 산림스텝지구 신석기, 청동기, 초기철기 유적』, 모스크바, 1981.)
- Семина Л.В., 『Кристинкина пещера : памятник раннего металла Юж. Заб.』, 『По следам древних культур Юж. Заб.』, Новосибирск, 1983. (세미나 L.V., 『크리стин키나 동굴 : 자바이칼 남부 금속기시대 초기 유적』, 『자바이칼 남부 고대문화의 흔적을 따라서』, 노보시비르스크, 1983.)
- Кириллов И.И., Верхотуров О.Г., 『Новые неолитические могильники из Вост. Заб. и их значение в определении этнокультурных связей местных племен』, 『Древнее Заб. и его культурные связи』, Новосибирск, 1985. (키릴로프 I.I., 베르호투로프 O.G., 『자바이칼 동부에서 새로운 신석기시대 분묘군과 그 재지부족 문화인종 연계성의 의미』, 『고대 자바이칼과 그 문화연계성』, 노보시비르스크, 1985.)
- Семина Л.В., 『Эпоха неолита и палеометалла юго-западного Забайкалья』, Автореферат дисс. ... канд. ист. наук. Л, 1986 (세미나 L.V., 『자바이칼 남서부 신석기 및 금속기시대 초기』, 박사학위논문 개요, 레닌그라드, 1986.)
- 김원룡. 『시베리아 쉘카동굴의 신석기 문화』, 『한국고고학연구』, 1992.
- Мазин А.И., 『Древние святилища Приамурья』, Новосибирск, Наука, 1994. (마진 A.I., 『아무다리아 고대 사원』, 노보시비르스크 : 나우카, 1994.)
- Дятчина Н.Г., 『Многослойное поселение Ишихан на р. Шилка』, 『археология и этнология Сиб.: Материалы 39-й РАЭСК.』, Чита, 1999. (다트치나 N.G., 『쉘카강 시쉬한 다층취락』, 『시베리아 고고학과 민속학 : 제 39회 RAESK 자료집』, 치타, 1999.)
- Гришин Ю.С., 『Проблемы периодизации неолита и энеолита Прибайкалья и Забайкалья』, Москва, 2000. (그리쉰 Yu.S., 『프리바이칼, 자바이칼 신석기 및 금석병용기 시대구분 문제』, 모스크바, 2000.)
- Кириллов И.И., Ковычев Е.В., Литвинцев А.Ю., 『Новые исследования в Приаргунье』, 『Обзорные результаты полевых и лабораторных исследований археологов и этнографов

Сиб. и Д. Вост. в 1994 - 1996 гг.», Новосибирск, 2000. (키릴로프 И.И., 코브체프 Ye.V., 리트빈체프 A.Yu., 『프리아군에서 새로운 연구』, 『1994~1996년도 시베리아 및 극동지역 고고민속학적 야외조사, 실내작업 결과』, 노보시비르스크, 2000.)

Кириллов И.И., Ковычев Е.В., Кириллов О.И., 『Дарасунский комплекс археологических памятников. Восточное Забайкалье』, Новосибирск : Изд-во Ин-та археологии и этнографии СО РАН, 2000. (키릴로프 И.И., 코브체프 Ye.V., 키릴로프 O.I., 『자바이칼 동부 다라순스키 고고유적』, 노보시비르스크 : 러시아과학원 시베리아지부 고고학민속학연구소 출판소, 2000.)

Нестеренко В.В., 『Особенности неолитической индустрии в Восточном Забайкалье』, 『Традиционные культуры и общества северной Азии. : с древнейших времён до современности』, Кемерово, 2004 г. (네스테렌코 V.V., 『자바이칼 동부 신석기시대 산업의 특징』, 『북아시아 전통문화와 사회 : 고대부터 현대까지』, 케메로보, 2004.)

Кириллов И.И., Дятчина Н.Г., 『Хозяйство позднего неолита - ранней бронзы в Нерчинской Даурии : по материалам исследований в Приаргунском районе 1991-2001гг.』, 『Центральная Азия и Прибайкалье в древности : Сборник научных трудов』2, Улан-Удэ : Изд-во Бурятского ун-та, 2004. (키릴로프 И.И., 님트치나 N.G., 『네르친스카야 다우리야의 신석기시대 후기 - 청동기시대 초기 생업 : 1991~2001년도 프리아르군스키 지구 연구자료』, 『중앙아시아와 프리바이칼의 고대 : 연구자료집』2, 울란우데 : 부랴티야대학교출판사, 2004.)

Константинов М.В., Екимова Л.В., Гантимурова М.И., 『Неолитические погребения в окрестностях села Жиндо』, 『Исток и формирование и развитие евразийской поликультурности. Культуры и общества Северной Азии в историческом прошлом и современности : Материалы 1 (45) Российской с международным участием археологической и этнографической конференции студентов и молодых ученых(РАЭСК-45)』, Иркутск: Изд-во РПЦ «Радиян», 2005.

(콘스탄티노프 M.V., 예키모프 L.V., 간티무로바 M.I., 『진도 마을 근교 신석기시대 매장유구』, 『유라시아 정치문화사 시원, 형성과 발전. 북아시아 역사적 과거와 현재 문화와 사회 : 러시아 국내외 학생 및 신진학자 고고민속학 학술대회 자료 1 (45) (RAESK-45)』, 이르쿠츠크: 라디안출판사, 2005.)

Ветров В.М., 『Проблемы сходства в технике изготовления и орнаментации сосудов ранних керамических комплексов Северной Евразии』, 『Современные проблемы археологии России. : Материалы Всероссийского археологического съезда (23-28 октября 2006 г., Новосибирск)』1 Новосибирск : Изд-во Института археологии и этнографии СО РАН, 2006. (베트로프 V.M., 『유라시아 북부 초기 토기 제작법 및 문양 유사성의 문제점』, 『러시아 고고학 최신 문제점 : 전러시아고고학대회 자료집』1, 노보시비르스크 : 러시아과학원 시베리아지부 고고학민속학연구소 출판소, 2006.)

Константинов М.В., Константинов А.В., 『Историческое наследие』, 『Малая энциклопедия Забайкалья. Археология』, Новосибирск : Наука, 2011. (콘스탄티노프 M.V., 콘스탄티노프 A.V., 『역사유산』, 『자바이칼 소백과사전. 고고학』, 노보시비르스크 : наука, 2011.)

Аннотация

Неолит Восточного Забайкалья на востоке Сибири

Сергей Владимирович Алкин

Статья посвящена результатам изучения археологии неолитического периода в восточных районах Забайкальского края в Сибири (Россия) за последнее столетие.

Дана характеристика различных типов археологических памятников в это время, включая стоянки, отдельные погребения и могильники, петроглифы.

Наличие погребальных комплексов является особенностью изучаемого региона, тогда как они редки в неолите бассейна р. Амур, к которому принадлежит Восточное Забайкалье.

Хозяйственно-культурный тип неолитического населения региона определялся ландшафтно-климатическими условиями. В таёжной зоне это были охотники на благородного оленя, лося, косулю.

В степной тоже охотники, но на кулана, лошадь, дзерена и сайгу. Охота производилась с использованием лука, в т.ч. и сложносоставной конструкции.

В прибрежной зоне рек и озёр люди занимались рыболовством.

В Восточном Забайкалье время появления керамики не ранее 7 тыс. л.н. Распространены остродонные и круглодонные изделия.

В статье делается вывод о том, что на сегодняшний день в российской археологии отсутствует общепринятая культурно-хронологическая схема неолитического периода в Восточном Забайкалье.

Это связано с неравномерностью изучения территории. Тем не менее удаётся выявить отдельные локальные особенности.

Ключевые слова : неолит, археологическая культура, материальная и духовная культура, стоянка, погребение, Забайкалье, Восточная Сибирь, Россия.

<Abstract>

Neolith of Eastern Transbaikalia of East Siberia

Alkin Sergey Vladimirovich

The article is devoted to the results of the study of the archaeology of the Neolithic period the Eastern areas of the Zabaikalsky Krai in Siberia (Russia) during the last century. The characteristic of different types of archaeological sites of this period, including sites, separate burials and burial grounds, petroglyphs. The existence of burial complexes is a feature of the researched region, whereas they are rare in basin Amur river of the Neolithic, which belongs to the Eastern Transbaikalia. Economic-cultural type of the Neolithic population of the region was determined by the landscape-climatic conditions. In taiga zone they were hunters of deer, elk, roe deer. In the steppe zone were also hunters. They hunted koulan, horse, Mongolian Gazelle and saiga. Hunting was carried out with the use of a bow, including composite design. In the coastal zone of rivers and lakes people were engaged in fishing. Time of appearance of ceramics in Eastern Transbaikalia is seventh Millennium BC. Typical pottery was the vessels with a round bases and narrow bases. The article concludes that today in the Russian archeology does not exist commonly cultural and chronological scheme of the Neolithic period in Eastern Transbaikalia. It is connected with the irregularity of the researching of the territory. However, it is possible to identify some local peculiarities.

Key Words : Neolithic, archaeological culture, spiritual culture, material culture, site, burial, Transbaikalia, East Siberia, Russia

